

발행인 칼럼



최호열  
포천신문발행인

처음 지역신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포천시민신문 창간과 함께 회장직을 맡으면서부터다. 신문이 경쟁력을 갖추고 바른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과는 달리 운영되는 경영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 1년 만에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에 만난 것이 포천신문이다.

2000년8월 포천신문을 인수하면서 전혀 발행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름 값으로 큰 돈을 지불해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포천사람 누구도 포천신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해 10월 25일 재창간호를 발행하면서 정말 바른 신문으로 우리사회를 밝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그로부터 2007년8월 이제 만 7년이 되었다. 포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으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서던 실천의 삶을 포천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민들께 알리는 일을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신문이 벌써 7년이라는 세월동안 매 10일마다

단 한번의 결호 없이 시민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포천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포천신문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물론 가혹한 채찍질도 달게 받아왔다.

또 2회에 걸쳐 개최한 포천민속 경기대회는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놀이를 발굴, 보존, 계승하려는 그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그만두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수해를 입거나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때 포천사

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한마당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개최한 포천 노인마라톤대회는 관내 3천여명의 노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갖도록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담은 물론 잘못된 병폐,비리를 조사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포천신문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 포천사람들을 만나고 포천사람들로 하여금 포천신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예산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문을 발행하는 일은 포천신문사가 맡고 포천사람들은 포천신문을 직접 구입해 읽고 여론을 형성해 포천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 일에 전 시민의 아낌없는 동참을 기다린다. 전 시민이 독자가 되어 더 좋은 신문발행은 물론 더 유익한 사회, 수준 높은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예산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문을 발행하는 일은 포천신문사가 맡고 포천사람들은 포천신문을 직접 구입해 읽고 여론을 형성해 포천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포천사람과 포천신문

여 연중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정성어린 성금을 전달할 때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말없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하며 자동적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는 분들과 직접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설 때 함께 해 주시는 포천신문 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여러분들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선거가 있을 때마다 개최해온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나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자로서 진지한 토론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희망이 교차하곤 했다. 어르신

들은 포천신문사에 성금을 전달했고 포천신문사는 이 성금을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포천신문사 내적으로 각 계층의 전문가를 모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신문발행에 따른 다양한 내용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포천신문이 포천신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명예기자단을 구성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포천사회를 조망해내고 또 주부명예기자단을 구성해 주부의 시각으로 포천사회를 바라보고 이를 지면에 반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직접 찾아가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담은 물론 잘못된 병폐,비리를 조사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포천신문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 포천사람들을 만나고 포천사람들로 하여금 포천신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예산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문을 발행하는 일은 포천신문사가 맡고 포천사람들은 포천신문을 직접 구입해 읽고 여론을 형성해 포천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 일에 전 시민의 아낌없는 동참을 기다린다. 전 시민이 독자가 되어 더 좋은 신문발행은 물론 더 유익한 사회, 수준 높은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예산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문을 발행하는 일은 포천신문사가 맡고 포천사람들은 포천신문을 직접 구입해 읽고 여론을 형성해 포천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와 흘린 땀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포천신문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여러분들의 열린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기대한다.

셰익스피어 에세이

남북정상회담은 화해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



박정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핵 문제가 경색되었던 화해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만나 발표한 6.15공동선언으로 부풀었던 남북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의 비전이 북핵으로 손실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조성된 보수 세력의 경경 기초가 협력보다는 '퍼주기 반대'라는 반동기조를 형성하여왔다.

국민들 또한 노무현정부의 실정으로 실망한 나머지 역사적으로 모처럼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북한과의 공존보다는 대치와 견제가 마치 최고의 왕도인양 현혹된 것도 사실이다. 마치 전장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경직된 사고를 드러내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의아스러울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폭풍'에서 동생의 반역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섬에 유배되어 복수의 칼을 갈아온 프로스페로가 어떻게 분노와 증오를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프로스페로는 자신의 정권을 전복하는 과정에서 동생과 협력한 알론조 일행이 섬을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한다. 그는 그동안 습득한 기술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배를 폭풍으로 좌초시키고 그 옆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딸 미란다와 알론조의 아들 페르디난드를 사랑으로 결합시키고 마지막 순간 용서와 화해라는 카드를 내밀어 극적인 화해의 장을 만든다. 복수와 증오의 마음을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셰익스피어의 시각은 결코 복수나 폭력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역사에서 치욕적인 굴욕상징의 정쟁이 장미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죽음을 몰고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것은 현재의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테러에 대해서 강경노선을 지지하던 미국인들도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이라크에서 죽어 가는 것에 신물이 난 상태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프가니스탄 봉사에 나섰다가 납치되어 죽음을 사상을 받고 있어 온 국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폭력으로 폭력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대사의 비극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우매함에서 비롯된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아가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역사와 우리 땅을 함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세이 47

시간 경영의 소중함 -시간을 벗삼아 그 속에 머물자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 관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골골 "시간은 금이다. 또는 시간은 돈이다(Time is Gold & Time is Money)."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쉽게 듣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돈은 귀한 줄 알면서도 흔하디 흔한 시간의 소중함을 소홀히 하거나 잊고 생활하기가 일쑤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구석구석에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와 습관들이 많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식기반사회 또는 지식혁명의 사회, 정보(화)사회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고 합리적인 시간 관리로 능률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도 익히 아는 바처럼, 시간 관리의 진정한 목적은 시간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의 양을 늘림으로써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현명한 시간 사용법일 것이며, 아울러 시간의 풍요는 휴식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시간 관리'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일회성입니다. 누구든지 일년 안에 생일이 두 번 있을 수 없듯이 시간은 일회적입니다. 둘째는 단일성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서 그 시간에 식사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순간성입니다. 이것은 시, 분, 초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원리는 이 세 가지가 현재에만 속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고, 미래는 아직 나의 것으로 소유되거나 경험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일회적, 단일적, 순간적으로 경험되고 있으므로 현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인(詩人) 롱펠로우 (Longfellow, Henry Wadsworth)는 "모든 인간은 시간의 율타리 안에서 일하는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율타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고 시간의 귀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의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시간 속에 머무르는 것일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Goethe, Johann Wolfgang)는 "시간, 머물러라오.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는 행복이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벗삼아 그 속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시간에 관한 명언(名言)을 많이 남겼는데, "만일 내가 인생을 사할한다면 내 시간을 사할

여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자기의 시간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씩 균등하게 주어지는 시간 배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루 하루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지만 그 하루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덧없는 하루, 혹은 기쁘고 행복한 하루는 자기의 시간 관리 결과이며 그 책임도 자기 몫입니다. 오늘 내가 못 보낸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루의 삶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위대함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에 반비례하여 시간의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삶이며, 삶은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시간은 물처럼 비싸지만 흘러갑니다. 청소년 시절의 짧은 생 각으로는 시간이란 마냥 주어진 것 같



지정주  
포천여자대학교교장

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할기 왕성한 시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며, 한번 지나가면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이며, 자기 삶을 허비하는 엄청난 실수와 해악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귀함을 절감하고 존중(寸陰)도 아껴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글 중에 시간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라는 내용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년이노화난성(少年老學難成),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 미각지경춘초몽(未覺地轉春草夢),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한순간의 시간도 헛되어 할 수 없다. 연꽃가의 봄 풀은 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뜰 앞의 오동잎은 벌써 가을을 전하는구나.

“옛 글은 송나라 학자 주희(朱熹)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오동잎을 바라보면서, 이미 백발이 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월의 빠른 흐름을 감탄 문구로 읊긴 것으로, 이는 성인(成人)을 포함하여 특히 청소년들이 시간을 아끼고 학업에 전념할 것을 바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시 정리하면, 세월의 빠른 흐름에 비해서 학문의 길은 험지 않다 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감사합니다.

포천시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는 남북정상 회담을 적극 지지하면서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통일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이나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역량 결집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 협 의 회 장 윤장일
- 기획운영위원장 이준호
- 부 회 장 최호열
- 교육홍보위원장 김중기
- 부 회 장 김성남
- 여성복지위원장 박순복
- 간 사 전순이
- 행정실장 최창근